

《파블로의 일생》에 나타난 서사 연구: 첫 네 곡을 중심으로*

강 용 식
(안동대학교 조교수)

1. 들어가며

《파블로의 일생》(*The Life of Pablo*, 이하 TLOP)은 미국 래퍼 카니에 웨스트(Kanye West, 1977-)의 일곱 번째 스튜디오 앨범으로 2016년 2월 14일 발매되었다. 이 앨범은 2년 반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졌으며 발매 이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특히 이 앨범에 대하여 “욕이 많이 담겨있는 가스펠 앨범”이라는 웨스트의 인터뷰는 논란이 되었는데,¹⁾ 이전 6집 앨범 《이저스》(*Yeezus*)에서 ‘나는 신이다’(I am a God)라는 곡으로 신성모독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웨스트의 이력을 생각해보면 새로운 앨범에 대한 그의 발언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였다.²⁾ 이후 공개된 TLOP에는 종교적인

* 본 논문은 2022년 12월 3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제31회 한국대중음악학회 정기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Life of Pablo는 가스펠 앨범인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당시 많은 조언을 주신 장유정 교수님, 이기웅 교수님, 양재영 교수님, 성연주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1) Jon Blistein, “Kanye West: New Album Is ‘Gospel Album with Whole Lot of Cursing’,” *Rolling Stone*, 2016년 2월 4일, <https://www.rollingstone.com/music/music-news/kanye-west-new-album-is-gospel-album-with-whole-lot-of-cursing-111762/> [2023년 8월 27일 접속].
- 2) NME, “Priest Defends Kanye West’s ‘I Am A God’ from Accusations of Blasphemy,” *NME*, 2013년 8월 30일, <https://www.nme.com/news/music/kanye-west-520-1259224> [2023년 8월 27일 접속].

내용과 세속적인 내용이 뒤섞여 있었으며, 이런 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앨범을 과연 가스펠 앨범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끌었다.³⁾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런 논쟁은 TLOP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 앨범은 오랜 시간 동안 작업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앨범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그리고 공개된 여러 버전을 통해 웨스트가 자신의 의도를 어떻게 더욱 분명히 하였는지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두꺼운 텍스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가사의 내용을 넘어서는 보다 깊은 차원에서의 해석이 요구된다. 실제로 이 앨범을 자세히 관찰하면 각각의 곡에서 독특한 서사(narrative)가 전개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대중음악 연구에서 서사를 이용하는 경우는 최근까지 찾아보기 힘들었다. 2007년 논문에서 데이빗 니콜스(David Nicholls)는 당시 대중음악 연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세 권의 책을 언급하며 이 책들에서 “서사성(narrativity)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놀랍지 않다”라고 적었다.⁴⁾ 그러나 그는 “서사는 대중음악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대중음악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며 서사의 관점에서 대중음악 연구의 필요성을 설파하였다.⁵⁾ 필자의 관찰로는 TLOP에도 서사 혹은 서사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이 앨범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⁶⁾

3) 대표적으로 티모시 웰벡(Timothy N. Wellbeck)은 이 앨범이 “기독교인에 대한 전통적인 분류의 틀에 분명하게 들어맞지는 않지만, [...] 관객들로 하여금 진정한 기독교적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하였다. Timothy N. Wellbeck, “The Gospel according to Ye: Kanye West, *The Life of Pablo*, and Authentic Christianity,” in *Beyond Christian Hip Hop: A Move toward Christians and Hip Hop*, eds. Erika Gault and Travis Harris (New York: Routledge, 2020), 250.

4) David Nicholls, “Narrative Theory as an Analytical Tool in the Study of Popular Music Texts,” *Music & Letters* 88 (May 2007), 297.

5) Nicholls, “Narrative Theory as an Analytical Tool,” 300.

6) 니콜스는 서사와 서사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 H. 포터 애벗(H. Porter Abbott)은 서사를 “사건(event) 혹은 사건의 연속의 재현(representation)”이라고 정의한다. H. Porter Abbott,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12. 한편 프레드 에버렛 마우스(Fred Everett Maus)는 서사성을 “인공물(artefact)을 서사의 예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질 혹은 서사와 매우 닮은 성질”이라고 정리하였다. Fred Everett Maus, “Narrativity,” in *Grove Music Online*, <http://www.oxfordmusiconline.com/> [2023년 8월 27일 접속].

본 논문에서는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TLOP의 첫 네 곡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이 곡들의 가사와 음악에는 여러 가지 층위가 존재하며 이들은 섬세하게 연결되어 복잡한 형태의 서사를 띠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앨범의 작업과정과 수정작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II. TLOP의 제작과정과 다층성

TLOP는 준비과정에서부터 발매는 물론, 발매 후까지 일반적이지 않았다. 이 앨범의 작업은 2013년 11월에 시작되었는데 도중에 제목이 여러 번 바뀌었다. 제목은 2013년에는 《So Help Me God》이었고, 2015년 5월에는 《Swish》로 변경되었다.⁷⁾ 2016년 1월 26일에 다시 《Waves》로 바뀌었고, 불과 출시를 며칠 앞둔 2016년 2월 9일에 최종적으로 《The Life of Pablo》로 확정되었다. 이 앨범 전체가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2016년 2월 11일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Madison Square Garden)에서 펼쳐진 패션쇼였다. 이 패션쇼는 당시 웨스트와 협업 관계에 있던 스포츠 의류 브랜드 아디다스(Adidas)의 이지 시즌 3(Yeezy Season 3) 라인업의 공개와 웨스트의 새로운 앨범 TLOP의 리스닝 파티를 겸한 자리였다.⁸⁾ 이때 발표된 음원들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2월 14일 스트리밍 업체인 타이달(Tidal)에 총 19곡으로 공개되었다. 한편 웨스트는 TLOP는 “살아 숨쉬며 계속하여 변화하는 창의력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음원을 공개한 이후에도 수정을 이어나갔다.⁹⁾ 그는 2016년 3월 30일 수록곡들의 대부분을 수정하는 대규모 업데이트

7) Jack Moore, “Kanye West Changes Album Title Again, From ‘Swish’ to ‘Waves,’” *Newsweek*, 2016년 1월 27일, <https://www.newsweek.com/kanye-west-changes-album-title-again-swish-waves-420002> [2023년 8월 27일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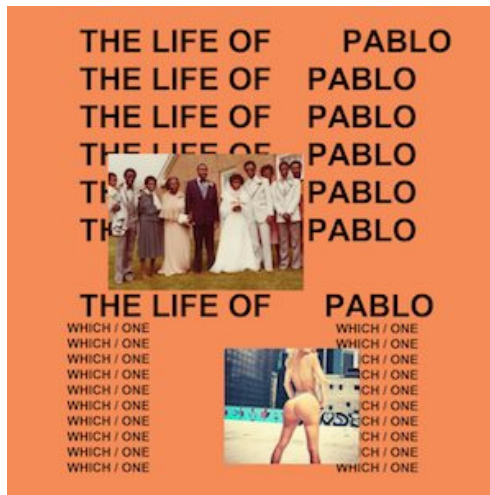
8) Adelle Platon, “Kanye West Combines His Two Loves with ‘Life of Pablo’ Album & Yeezy Season 3 Debut at MSG,” *Billboard*, 2016년 2월 11일, <https://www.billboard.com/music/rb-hip-hop/kanye-west-life-pablo-album-yeezy-season-3-msg-6874814/> [2023년 8월 27일 접속].

9) Ben Dandridge-Lemco, “Kanye West Is Updating ‘Wolves,’” *Fader*, 2016년

를 단행하였으며, 2016년 6월 14일에는 새로운 곡인 ‘사도 바울’(Saint Pablo)을 앨범의 마지막 곡으로 추가하였다. 그 결과 TLOP는 총 20곡의 앨범이 되었고 이후 추가적인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복잡한 작업 과정은 이 앨범에서 여러 개의 층위를 만들어 내었다. 이런 다층성은 앨범의 표지와 제목, 그리고 곡들의 배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앨범의 표지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TLOP의 앨범 표지



위 그림에는 성스러움을 상징하는 교회에서의 예식 장면과 세속을 의미하는 여인의 노출된 뒷모습이 실려있다. 이런 대조되는 내용의 병치는 “욕이 담긴 가스펠 앨범”이라는 웨스트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게다가 표지에 실려있는 “WHICH/ONE”이라는 문구는 《파블로의 인생》이라는 제목과 연결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파블로”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사의 내용과 웨스트의 이전 작업을 고려할 때 이는 세 명의 파블로, 즉 20세기 스페인 화가인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 콜롬비아의

3월 15일, <https://www.thefader.com/2016/03/15/kanye-west-is-updating-wolves> [2023년 8월 27일 접속].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Pablo Escobar, 1949-1993),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St. Paul, 5-65)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웨스트는 2016년 1월 말, 당시 《Waves》라고 불리던 앨범의 트랙 리스트를 세 개의 막으로 나누어 공개하기도 하였다.¹⁰⁾

〈표 1〉 2016년 1월 임시 트랙 리스트

1막	2막	3막
1. 'Famous'	4. 'High Lights'	8. 'FML'
2. 'Father Stretch My Hands (Pt I & Pt II)'	5. '30 Hours'	9. 'Real Friends'
3. 'Waves'	6. 'No More Parties in LA'	10. 'Wolves'
	7. 'Fade'	11. 'Ultra Light Beam'

이것과 2016년 2월 14일 발표된 최종 리스트를 비교해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앨범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 2016년 2월 14일 최종 트랙 리스트

1. 'Ultralight Beam'	10. 'Waves'
2. 'Father Stretch My Hands Pt. 1'	11. 'FML'
3. 'Pt. 2'	12. 'Real Friends'
4. 'Famous'	13. 'Wolves'
5. 'Feedback'	14. 'Frank's Track'
6. 'Low Lights'	15. 'Siiiiiiiiilver Surffffeeeeeer Intermission'
7. 'Highlights'	16. '30 Hours'
8. 'Freestyle 4'	17. 'No More Parties In LA'
9. 'I Love Kanye'	18. 'Facts (Charlie Heat Version)'
	19. 'Fade'

공개된 앨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로운 곡들이 추가되었고 트랙들

10) Harriet Gibsone, "What We Know about Kanye West's *Waves*, The Greatest Album of All Time," *The Guardian*, 2016년 1월 29일, <https://www.theguardian.com/music/2016/jan/29/kanye-west-waves-what-we-know-tracks-collaborators-art> [2023년 8월 27일 접속].

의 순서가 많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특히 ‘초경량의 빛(Ultralight Beam, 이하 ULB)’은 원래는 앨범의 맨 마지막에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첫 번째 곡이 되었다. 또한 ‘유명한’(Famous, 이하 Famous)과 ‘아버지 내 손을 뺏습니다’(Father Stretch My Hands, 이하 FSMH)의 순서도 뒤바뀌었다. 작업 중에는 Famous가 FSMH의 앞에 있었지만, 최종본에서는 FSMH가 Famous보다 먼저 배치되었다. 이런 변화들은 처음에 등장하는 네 개의 곡이 앨범 전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특히 이 앨범의 다층성을 고려하면 이런 점은 더욱 의미심장해 보인다. 이제 이 곡들을 살펴보면서 곡들에 담겨있는 서사의 특징과 함의를 논의해보겠다.

III. 첫 네 곡에 나타난 독특한 서사

1. ULB: 일반적인 가스펠을 넘어서는 곡

첫 번째 트랙인 ULB는 이 앨범에서 가장 가스펠 같은 곡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찬스 더 래퍼(Chance the Rapper, 1993-)는 “ULB는 웨스트의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 관한 곡입니다. 그가 지치거나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는 빛을 찾고 하느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¹¹⁾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관찰로는 이 곡은 다층적인 성격을 가지며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제프리 맥킨(Jeffrey McCune)은 이 곡에서 “웨스트가 다수의 목소리들과 다양한 미학적인 음향재료를 사용한 것은 [...] 자기 자신과 청자들에게 다성적(polyphonic)이고 다(多)텍스처적인(polytextual)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보여준다”¹²⁾라고 주장하였다.

다성적(polyphonic)이라는 말은 여러 성부가 동시에 움직이는 음악적 짜임새를 일컫는 말이지만, 맥킨의 전체적인 주장을 고려하면 여기서는 이 용어를 다성성(多聲性, polyphony)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적절해 보인다. 다성성이

11) https://en.wikipedia.org/wiki/Ultralight_Beam [2023년 8월 27일 접속].

12) Jeffrey McCune, ““Ultralight Beam”: The Gospel According to Kanye West,” *Journal of Hip Hop Studies* 6/1 (2019), 52.

란 말은 러시아 문학이론가인 미하일 바흐친(Mikhail M. Bakhtin, 1895-1975)이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y, 1821-1881)의 소설을 연구하며 사용한 개념이다. 바흐친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서 동등하고 독립적인 “여러 목소리”가 함께 들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음악에서 다성음악을 가리키는 폴리포니의 개념을 빌려왔는데, 바흐친에 따르면 “독립적이며 융합하지 않는 다수의 목소리들과 의식들, 그리고 각기 완전한 가치를 띤 목소리들의 진정한 다성악(多聲樂, polyphony)이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의 핵심적인 특성”이다.¹³⁾ 한편 문학과 음악의 관계에 주목한 영문학자 베르너 볼프(Werner Wolf, 1955-)는 이들의 매체적 차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문학과 음악 사이의 유사성은 존재하지만, 매체에 따라 세부적인 특성은 다르게 나타난다. 볼프는 문학보다 음악에서 “기표들의 소리의 표면”(the sound surface of their signifiers)이 더욱 중요하며, 이것들이 음악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고 주장하였다.¹⁴⁾ 필자의 생각으로는 ULB에서는 등장인물, 가사의 내용, 리프, 음향 등을 통해 다성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은 얽히고 설켜서 흥미로운 “소리의 표면”을 만들어낸다. 이제 이 점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가수에 따라 구분한 곡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이 곡은 어린 아이의 샘플링으로 시작하여 더 드림(The-Dream), 웨스트, 켈리 프라이어(Kelly Price), 찬스 더 래퍼, 키크 프랭클린(Kirk Franklin) 등이 참여한다. 그리고 곡의 중간에 가스펠 합창단이 등장하고 마지막 부분은 가스펠 합창단의 솔로로 끝난다.

13) Mikhail Bakhtin, 『도스토예프스키 시학』(*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Polyphony and Unfinalizability*), 김근식 역 (서울: 정음사, 1988), 11.

14) Werner Wolf, *The Musicalization of Fiction: A Study in the Theory and History of Intermediality* (Amsterdam: Rodopi, 1999), 16; 이미배, “슈만 그리고 상호매체성의 이슈들 (2):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 Op. 16에 나타나는 음악과 문학의 상호매체성,” 『이화음악논집』 25/4 (2021), 124에서 재인용.


〈표 3〉 ULB의 다성성 구조

시간	등장 가수	리프의 사용	가스펠 합창단의 등장	
0:00-0:25	어린 아이 샘플링			
0:15-0:27	더 드림			
0:27-1:38	웨스트			
1:38-1:58	더 드림			1:24-2:10
1:58-2:34	캘리 프라이스			
2:34-4:06	찬스 더 래퍼			
4:06-4:22	웨스트			4:07-4:42
4:22-4:42	더 드림			
4:42-4:59	커크 프랭클린			
4:59-5:21	가스펠 합창단			4:59-5:21


이렇게 여러 가수들이 들락날락하는 구조에서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은 곡 전체에서 반복되는 리프이다. Cm, Eb, Ab, Cm, G7으로 구성된 네 마디 리프가 4분 22초부터 4분 42초까지를 제외하고 계속 반복된다. 또한 곡의 마지막 부분인 4분 59초 이후에도 이 리프는 등장하지 않는다.

〈예 1〉 ULB의 리프,

<https://youtu.be/6oHdAA3AqnE?si=YpJQctJEObUABUFA&t=9>



Cm Cm Eb Ab Cm G7 G7



한편 이 곡을 가스펠 곡으로 만들어주는 첫 번째 요소는 가사이다. 이 곡은 어린 소녀의 샘플링으로 시작하는데, 이 소녀는 “우리는 집에 마귀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을 원한다(We don’t want no devils in the house, we want the Lord)”고 이야기한다. 그 외에도 웨스트는 “이것은 신의 꿈이다(This is a God dream)”라는 후렴을 부름으로써 종교적인 뉘앙스를 분명히

한다. 이 곡의 또 다른 가스펠적인 요소는 가스펠 합창단이다. 이들은 총 세 번 등장하여 곡 전체의 통일성을 높일 뿐 아니라 종교적인 색채도 강화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가스펠 합창단은 이 곡에서 다성성을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이들은 등장할 때마다 조금씩 성격이 변하여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합창단은 처음에는 가수들을 연결해주는 단순한 역할을 하지만, 세 번째 등장할 때는 곡 전체에서 가장 이질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한다. 이때 합창단은 무반주로 노래함으로써 매우 극적으로 이질성을 드러낸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합창단이 등장하는 세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합창단은 1분 24초와 2분 10초 사이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때 이들은 전혀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가수들이 등장하여 각기 다른 음악을 부르고 빠지는 과정에서 통일성의 요소로 작용한다. 합창단은 웨스트가 리프레인(refrain)을 부를 때 가사를 그대로 따라 부르면서 등장한다. 그다음 더 드림이 리프레인을 부를 때는 조금 뒤로 빠져서 낮은 음역에서 네 단어 "Faith, More, Safe, War"를 부른다. 그 다음 더 드림이 빠지고 프라이스의 버스(verse)가 들어오는데, 프라이스가 들어온 이후에도 합창단은 네 단어를 한 번 더 노래하고 사라진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더 드림과 프라이스의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준다. 프라이스가 이 곡에 등장하는 유일한 여성가수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합창단 덕분에 남성과 여성이라는 대비는 거의 두드러지지 않는다. 또한 이 부분에서 합창단은 아주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특히 프라이스가 가스펠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프라이스는 피처링한 아티스트라기보다는 합창단의 솔로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합창단이 사라지고 나서야 프라이스가 독립적인 아티스트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표 4〉 가스펠 합창단의 첫 번째 등장 부분

시간	가수	가스펠 합창단
1:24-1:38	웨스트(리프레인)	웨스트의 가사를 그대로 부름
1:38-1:58	더 드림(리프레인)	네 단어(Faith, More, Safe, War)만 부름
1:58-2:10	켈리 프라이스(버스)	네 단어(Faith, More, Safe, War)만 부름
2:10-2:34	켈리 프라이스(버스 계속)	빠짐

두 번째 등장하는 부분에서 합창단의 성격은 조금 변하여서 첫 번째와는 다른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게 된다. 합창단은 4분 6초와 4분 42초 사이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과 마찬가지로 웨스트와 더 드림의 리프레인 부분에서 들어온다. 이 부분에서 웨스트와 더 드림은 앞에서와 완전히 동일하게 노래를 부른다. 하지만 합창단은 조금 변한다. 그리고 반주를 맡은 리프도 조금씩 변한다. 먼저 합창단은 웨스트가 부르는 부분에서 잠시 침묵한다. 즉 처음에 나왔을 때 합창단은 웨스트의 모든 가사를 함께 불렀는데 여기서는 그의 가사를 한 줄씩 건너뛰면서 부른다. 그리고 이때 리프도 조금씩 생략된다. 그 결과 첫 번째 부분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느낌을 준다. 이런 느낌은 더 드림이 부르는 부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더 드림이 부를 때 합창단은 첫 번째와는 달리 높은 음역에서 화음을 노래함으로써, 합창단의 소리가 귀에 더 잘 들어오게 된다. 또한, 이렇게 합창단의 소리에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것은 이 부분에서 리프가 빠지기 때문이다. 즉 리프가 빠짐으로 인해 생긴 빈 공간을 더 드림과 합창단이 채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부분과는 다르게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에 주의가 기울여지는 것은 당연하다.

〈표 5〉 가스펠 합창단의 두 번째 등장 부분

시간	가수	가스펠 합창단	리프
4:06-4:22	웨스트(리프레인)	웨스트의 가사를 건너뛰며 부름	빠지기 시작
4:22-4:42	더 드림(리프레인)	네 단어(Faith, More, Safe, War)를 다른 화음으로 부름	빠짐

합창단은 곡의 마지막 부분에 솔로로 세 번째 등장한다. 두 번째 등장했을 때와 같은 화음을 부르지만 일단 솔로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한 이 부분에서 합창단은 두 번째 부분과 동일한 화음을 부르지만 리버브가 추가되었으며, 그 결과 노래하는 음의 길이도 미묘하게 늘어났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에서 합창단은 음향적 장치들을 이용하여 이전 부분과는 다른 공간감을 만들어낸다. 이로 인해 이 부분은 형식적으로는 아웃트로에 해당하지만, 이전 부분과는 다른 공간에 속해있는 듯한 이질감이 두드러지게 된다. 이런 점은 이 부분의 화음으로 인해 심화한다.

〈예 2〉 가스펠 합창단의 마지막 화음,

https://youtu.be/6oHdAA3AqnE?si=6lXJcr5yxsB_vHew&t=299

Cm Gm Cm G7

Faith, More, Safe, War.

합창단이 부르는 네 단어 “Faith, More, Safe, War”는 각각 Cm, Gm, Cm, G7 화음으로 노래 불린다. 특히 곡의 마지막에 나오는 G7 화음은 이 곡에 종결감을 주지 않고 새로운 공간을 여는 느낌을 준다. 즉 이 네 화음은 ULB를 완결 짓기보다는 새로운 앨범의 시작을 알린다. 이 곡에서 가스펠 합창단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웨스트의 창작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3월의 대대적인 업데이트에서 웨스트는 합창단의 믹스를 개선하였고, 찬스 더 래퍼를 제외한 모든 가수들에게 더 많은 리버브를 적용하였다.¹⁵⁾ 다시 말하면 웨스트는 합창단과 리버브를 추가적으로 수렴함으로써 다른 공간에 속해있는 듯한 인상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지금까지 ULB에서 가스펠 합창단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합창단의 세밀한 사용은 다성성을 확립함으로써 이 곡을 전형적인 가스펠 음악과 구분 짓는다. 매튜 겔버트(Matthew Gelbart)에 따르면 가스펠 음악은 “역사적으로 공동체의 (종교적인) 발화”로 받아들여졌으며, 따라서 “목소리들의 헤테로포니는 여러 페르소나들이 등장하는 진정한 다성음악이 아니라 (느슨한 의미에서) 하나의 페르소나로 녹아들어가게 된다.”¹⁶⁾ 겔버트의 주장을 고려하여 보면 다수의 목소리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ULB는 일반적인 가스펠 음악을 넘어섰

15) Peter Helman, “Kanye West’s Updated *The Life of Pablo* Is Now on Apple Music and Spotify,” *Stereogum*, 2016년 3월 30일, <https://web.archive.org/web/20160701001848/>; <http://www.stereogum.com/1868554/kanye-west-s-updated-the-life-of-pablo-will-reportedly-be-on-apple-music-and-spotify-this-friday/news/> [2023년 8월 27일 접속].

16) Matthew Gelbart, “Persona and Voice in the Kinks’ Songs of the Late 1960s,” *Journal of the Royal Musical Association* 128/2 (2003), 207-208.

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관습적인 서사를 벗어나려는 웨스트의 시도는 다음 곡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FSMH: 서사의 단절과 통합

ULB에서 열린 새로운 공간은 다음 곡, FSMH에서 연결되지 않는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 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사의 단절과 통합이다. 여기서는 FSMH에서 나타나는 서사의 단절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것을 웨스트가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겠다. 이후 단절된 서사를 웨스트가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그의 의도를 생각해보겠다. FSMH는 두 개의 트랙(1부와 2부)으로 나뉘어있는데, 등장하는 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표 6〉 1부의 구조

시간	가수	가사 내용	구성	반주 음형
00:00-00:31	가스펠 합창단	종교적	e단조	샘플
00:32-00:33	메트로 부민	프로듀서 택	e단조	무반주
00:34-00:50	키드 커디	종교적	e단조	리프
00:51-01:05	웨스트(리프라인)	종교적	e단조	리프
01:06-01:40	웨스트(버스)	세속적	e단조	베이스 선율
01:41-01:57	키드 커디	종교적	e단조	리프
01:58-02:16	웨스트(리프라인)	종교적	e단조	리프

〈표 7〉 2부의 구조

시간	가수	가사 내용	구성	반주 음형
00:00-00:12	가스펠 합창단	종교적	E b 장조	샘플
00:13-00:39	웨스트(버스)	세속적	e b 단조	리프
00:40-01:04	디자이너	세속적	e b 단조	리프
01:05-01:18	웨스트(리프라인)	종교적	E b 장조	무반주
01:19-01:41	디자이너	세속적	e b 단조	리프
01:42-02:01	캐롤라인 쇼	종교적	e 단조	코랄
02:02-02:10	가스펠 합창단	종교적	e b 단조	샘플

위의 표에서 가사의 내용을 보면 두 곡의 대조가 명확하다. 1부는 종교적인 가사가 주를 이루고 중간에 세속적인 가사가 삽입되어있는 반면, 2부는 세속적인 가사의 앞뒤에 종교적인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런 내용의 차이가 두 곡에서 가장 중요하다.

1부는 시카고에서 목사이자 가스펠 음악가로 활동했던 T. L. 바렛(T. L. Barrett, 1944-)의 ‘아버지 나는 내 손을 뻗습니다’(Father I Stretch My Hands)라는 곡의 샘플링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1976년 발매된 전형적인 가스펠 곡으로, 샘플링된 부분에서 가스펠 합창단이 “당신만이 유일한 힘(You’re the only power)”이라고 노래한다. 샘플 이후 메트로 부민(Metro Boomin, 1993-)의 프로듀서 태그(producer tag)¹⁷⁾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음악이 시작한다. 종교적인 내용은 키드 커디(Kid Cudi, 1984-)와 웨스트의 리프레이인을 통해 유지된다. 커디는 “아름다운 아침, 당신은 내 아침의 태양이다. 다른 게 더 필요 없다”(Beautiful morning, you’re the sun in my morning babe. Nothing unwanted)라고 노래하며, 웨스트는 “나는 단지 해방감을 느끼고 싶다(I just want to feel liberated)”라고 덧붙인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내용은 웨스트의 버스가 나오는 순간 깨어진다. 웨스트는 버스에서 다음과 같이 랩을 한다.

Now if I f*ck this model	이제 내가 이 모델과 떡을 치면
And she just bleached her asshole	그녀는 똥구멍에 표백제를 뿌리고
And I get bleach on my T-shirt	내 티셔츠에 표백제가 묻으면
I'mma feel like an asshole	난 개자식이 된 기분이야

이렇게 맥락과 전혀 상관없이 외설적인 가사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것은 “랩 역사상 최악의 섹스 가사” 중의 하나로 꼽히었으며,¹⁸⁾ 이 곡의 제작에 참여한 쉐스 더 래퍼는 이 부분을 웨스트

17) 프로듀서 태그는 노래의 시작 부분에 프로듀서가 삽입하는 짧은 부분으로 청자들에게 노래의 비트를 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힙합 음악에서 자주 사용되며 2000년대에 인기를 얻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Producer_tag [2023년 8월 27일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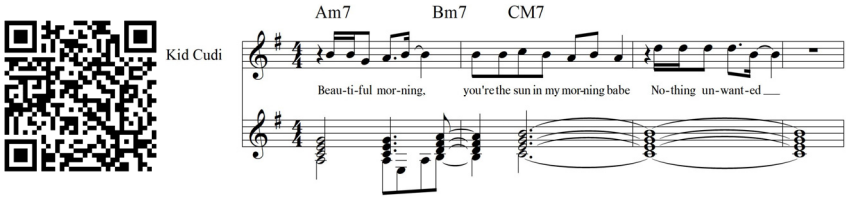
18) Complex, “The Worst Sex Lyrics in Rap History,” *Complex*, 2017년 1월

가 직접 쓴 것이라고 밝히며 웨스트는 “스튜디오에서 코미디언”이었다고 언급했다.¹⁹⁾ 찬스 더 래퍼가 웨스트를 “코미디언”이라고 부른 것은 뜬금없이 등장한 외설적인 내용의 가사에서 느끼는 당황함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당황스러운 웨스트의 가사는 곡 안에서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부분 이후 커디와 웨스트는 이전의 리프레이ンを 반복함으로써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곡이 계속된다. 즉 웨스트의 버스는 이 곡의 다른 부분과 단절되어 있다. 이런 종교적인 내용과 세속적인 내용의 단절은 음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커디와 웨스트의 리프레이ん은 동일한 리프를 반주로 사용한다.

〈예 3〉 키드 커디의 리프레이ん,

https://youtu.be/wuO4_P_8p-Q?si=yhqycCmaOyOywcmn&t=33



Kid Cudi

Am7 Bm7 CM7

Beau-ti-ful mor-ning, you're the sun in my morning babe No-thing un-want-ed _

〈예 4〉 웨스트의 리프레이ん,

https://youtu.be/wuO4_P_8p-Q?si=2u4QvPTkihvt0j5R&t=49



West

Am7 Bm7 CM7

I just want to feel li-be-ra-ted, I, I, I I just want to feel li-be-ra-ted, I, I, I

24일, <https://www.complex.com/music/a/complex/worst-sex-lyrics-in-rap-history> [2023년 8월 27일 접속].

19) https://en.wikipedia.org/wiki/Father_Stretch_My_Hands [2023년 8월 27일 접속].

즉 다른 선율과 가사이지만 이들의 반주는 공통이다. 그러나 외설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웨스트의 버스에서 이 리프는 나오지 않는다. 대신 베이스 선율로만 이루어진 반주가 등장한다.

〈예 5〉 웨스트의 버스,

https://youtu.be/wuO4_P_8p-Q?si=vNvjDxzmaJQnr6Bg&t=67



West

Now if I P'ck this mo - del And she jus bleached her ass - hole And I get bleached my T - shirt I'm - ma feel like an ass - hole

정리하면 웨스트는 종교적인 내용과 대비되는 세속적인 가사를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반주 형태를 사용하였고, 이 반주는 베이스 선율로만 이루어져 있어 다른 부분과는 달리 비어있는 느낌을 준다. 이렇게 웨스트가 이질적인 내용의 가사를 병치하고 이것을 음악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FSMH의 2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부의 처음 부분에는 1부에서 나왔던 가스펠 합창단이 잠깐 등장한다. 이후 웨스트의 버스로 본격적으로 곡이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고백한다. 이후 “차를 빨리 운전하고, 통제력을 잃었지/길을 벗어났고 턱이 부러졌지(Driving fast, lost control/Off the road, jaw was broke)”라는 가사를 통해 2002년에 자신이 겪은 교통사고를 언급한다. 즉 이 부분은 세속적인 일상에 대한 웨스트의 개인적인 이야기다. 한편 이런 내용들은 디자이너(Designer, 1997-)의 버스를 통해 극대화된다. 이 부분은 ‘판다’(Panda)라는 곡에서 샘플링한 것으로 여기서 주로 언급하는 내용은 여자, 마약, 사기, 자동차 등이다.

I got broads in Atlanta	아틀란타에서 여자들을 만났지
Twisting dope, lean, and the Fanta	마약을 따고, 린, ²⁰⁾ 아름다운 여자

20) 린은 마약의 일종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Lean_\(drug\)](https://en.wikipedia.org/wiki/Lean_(drug)) [2023년 8월 27일 접속].

Credit cards and the scammers	신용카드와 사기꾼들
Hitting off licks in the bando	마약 거래소를 털어버리고
Black X6, Phantom	검은색 X6 ²¹⁾ 는 유령 같고
White X6 looks like a panda	하얀색 X6는 판다 같이 보이네

한편 개인의 고뇌를 다루는 웨스트의 가사와 극단적으로 세속적인 내용을 전하는 디자이너의 샘플은 음악적으로 연결된다. 1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웨스트와 디자이너는 동일한 반주를 이용하여 각각 노래와 랩을 한다.

〈예 6〉 웨스트의 버스,

https://youtu.be/xp8z7pconzw?si=i4_usjZVdFnHMq_0&t=12



West

Ebm Bb7 Ebm Bb7

Up in the mor-ning miss you bad So-rry I ain't called you back The same pro-blem my fa-ther had All his time

〈예 7〉 디자이너의 버스,

<https://youtu.be/xp8z7pconzw?si=E6vjkhGxtTJVaytu&t=39>



Designer

Ebm Bb7 Ebm Bb7

I got broads in At-lan-ta Twisting dope, lean, and the Fan-ta Credit cards and the scam-mer's hitting off licks in the ban-do

이런 세속적인 내용은 1분 42초에 나오는 캐롤라인 쇼(Caroline Shaw, 1982-)의 종교적인 부분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쇼는 비록 20초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전혀 다른 가사와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쇼는 다음과 같

21) X6는 BMW X6를 의미한다. Natalie Robehmed, "Designer Explains How A "Panda" Looks Like A BMW X6," *Forbes*, 2017년 3월 20일, <https://www.forbes.com/sites/natalierobehmed/2017/03/20/designer-explains-how-a-panda-looks-like-a-bmw-x6/?sh=65db609b49b8> [2023년 8월 27일 접속].

이 노래한다.

How can I find you?	어떻게 당신을 찾을 수 있나요?
Who do you turn to?	당신은 누구에게 의지할 것인가요?
How do I bind you?	당신을 어떻게 묶을 수 있나요?

쇼는 무반주로 노래하지만, 보코더(vocoder)와 오버더빙(overdubbing)을 통해 다음과 같은 화음으로 들린다.

〈예 8〉 캐롤라인 쇼의 부분,

<https://youtu.be/xp8z7pconzw?si=pbuqCoGWPuSDs1bx&t=101>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hree lines of lyrics. Each line is written on a treble clef staff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The chords are Em, D7, and Em. The lyrics are: "How can I find you?", "Who do you turn to?", and "How do I bind you?". A QR code is located to the left of the first two lines of the score.

여기서 음악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쇼와 다른 가수들의 부분이 조성적으로 반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다. 쇼의 노래는 e단조에서 나오지만 다른 가수들은 모두 eb단조를 사용한다. 즉 쇼가 등장한 곳이 2부 전체에서 이질적인 공간이라는 사실이 조성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런 조성의 차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웨스트는 FSMH의 2부에서 성과 속의 대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조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둘째, e단조는 FSMH의 1부와 2부를 연결 짓는 통일성의 요소이다. 쇼의 부분에서 사용된 e단조는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1부의 지배적인 조성이었다. 따라

서 웨스트는 서로 다른 조성을 이용하여 성과 속의 대비를 나타낼 뿐 아니라 1부와 2부의 연관성을 높여주고 있다.

한편 이런 극적인 대비는 청자가 이 곡의 단절된 서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의아하게 만든다. 만약 이 곡이 하나의 서사라면 개연성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이렇게 특이한 서사 방식은 필자에게 대항 시네마(counter cinema)를 떠올리게 한다. 대항 시네마는 영화이론가 피터 울렌(Peter Wollen, 1938-2019)이 장뤽 고다르(Jean-Luc Godard, 1930-2022)의 영화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으로, 그는 기존의 헐리우드 영화와 다른 고다르 작품을 대항 시네마라고 부르며 서사적 비이행성(narrative intransitivity)을 고다르 영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꼽았다. 고다르가 타파하고자 했던 헐리우드 영화의 관습은 서사적 이행성(narrative transitivity)을 중요시했는데, 서사적 이행성은 “하나의 사건이 인과관계에 따라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의 연속”을 의미한다.²²⁾ 그 결과 헐리우드 영화와 달리 고다르의 작품에서는 장면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필자의 견해로는 웨스트의 FSMH에 나오는 서사도 비이행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곡의 부분들은 인과 관계 없이 서로 단절되어 있다. 알렉시스 페트리디스(Alexis Petridis, 1971-)는 이 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평하였다.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아버지 내 손을 뺏습니다’는 4분여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빠르기와 분위기를 바꾼다.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며, 오래된 가스펠의 거친 샘플에서부터 팝 코러스까지 다양한 음향, 베이스와 드럼의 거친 혼합, 그리고 보코더를 이용한 조용한 간주까지 포함한다. 여기서 문제는 이것이 누적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혼란스럽고 흩어져있는 것처럼 들린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저자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²³⁾

22) Peter Wollen, “Godard and Counter Cinema: *Vent d’Est*,” *Afterimage* 4 (Autumn 1972), 6.

23) Alexis Petridis, “Kanye West: *The Life of Pablo* Review,” *The Guardian*, 2016년 2월 14일, <https://www.theguardian.com/music/2016/feb/14/kanye-west-the-life-of-pablo-review-you-can-see-why-his-immodesty-rubs-up-the-wrong-way> [2023년 8월 27일 접속].

“누적되는 효과가 없다”는 페트리디스의 지적은 이 곡이 일반적인 구성방식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FSMH의 서사는 비이행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웨스트는 왜 이런 식으로 곡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 있다. 고다르가 서사의 비이행성을 사용하는 이유는 “서사의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관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새롭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²⁴⁾ 이런 관점은 TLOP에도 적용가능하다. 웨스트는 FSMH를 통해 청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새롭게 집중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ULB에서 만들어졌던 새로운 공간은 FSMH의 단절된 서사를 통해 청자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이럼으로써 웨스트는 TLOP의 나머지 곡들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게 된다. 다음 곡 Famous 역시 독특한 방식으로 청자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3. Famous: 파라텍스트의 사용

Famous는 앨범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각기 다른 서사를 보여준 웨스트가 이 곡을 어떻게 전개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이 곡에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파라텍스트(paratext)의 사용이다. 파라텍스트는 문학이론가 제라르 주네트(G rard Genette, 1930-2018)가 제시한 개념으로 “주(main)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다.²⁵⁾ 비록 텍스트 자체는 아니지만 파라텍스트는 우리가 텍스트를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파라텍스트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지를 알려주고, 이를 통해 우리가 텍스트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떤 해석 전략을 취해야 할지 정해준다.”²⁶⁾

Famous에서 사용된 파라텍스트는 다름 아닌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 1989-)와의 스캔들이다. 웨스트는 2009년 엠티비 비디오 뮤직 어워드(MTV Video Music Awards)에서 스위프트가 “여성 아티스트 최고의 비디오 상

24) Wollen, “Godard and Counter Cinema,” 7.

25) Abbott,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26.

26) Jonathan Gray, *Show Sold Separately: Promos, Spoilers, and Other Media Paratext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0), 26.

(Best Video by a Female Artist)”을 수상했을 때 무대에 난입하여 스유프트의 경쟁자였던 비욘세(Beyoncé, 1981-)가 “역대 최고의 비디오 중 하나를 찍었다”며 난동을 부렸다.²⁷⁾ 이 사건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으며 웨스트의 악명을 높여주었다. 이렇게 유명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웨스트는 이 곡의 30초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랩을 한다.

I feel like me and Taylor	나는 여전히 테일러와
might still have sex	섹스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느낀다.
Why? I made that bitch famous	왜? 내가 그 X를 유명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지.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의 가사에 청중들은 폭발적으로 반응하였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웨스트는 이 가사에 대하여 스유프트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스유프트가 이를 부인하며 둘 사이의 실랑이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²⁸⁾

실제로 Famous에 대한 대부분의 평가는 이 가사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이 곡에 담겨있는 음악적인 내용이나 다른 부분들은 거의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하여 제미슨 콕스(Jamieson Cox)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카니에 웨스트는 천재 음악가이자 세계 수준의 도발가이다. ‘유명한’은 이 두 가지 성질이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작품이다. 그는 《파블로의 일생》에서 가장 격렬한 비트, 니나 시몬(Nina Simone)

27) Rosie Swash, “Kanye West Apologises for Interrupting Taylor Swift at VMAs,” *The Guardian*, 2009년 9월 14일, <https://www.theguardian.com/music/2009/sep/14/kanye-west-taylor-swift-vm-as> [2023년 8월 27일 접속].

28) 웨스트를 옹호하기 위하여 당시 그의 아내였던 킴 카다시안(Kim Kardashian, 1980-)은 웨스트와 스유프트가 전화하고 있는 3분짜리 영상을 2016년 7월 공개하였다. 이 영상에서 스유프트는 웨스트의 가사 “나는 테일러와 여전히 섹스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느낀다”를 들은 후 이것이 “칭찬”처럼 들린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영상 공개 이후 스유프트는 거짓말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스유프트는 이것이 모든 맥락을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란은 25분 길이의 전체 영상이 2020년 3월 공개되면서 일단락되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Famous_\(Kanye_West_song\)](https://en.wikipedia.org/wiki/Famous_(Kanye_West_song)) [2023년 8월 27일 접속].

에서 빌려온 화음, 시스터 낸시(Sister Nancy)의 고전적인 레게 곡 “밤밤(Bam-bam)”을 이용하여 활기찬 태피스트리(tapestry)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모든 아름다움을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팝 스타와의 오래된 실랑이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사용하였다.²⁹⁾

콕스의 비판은 이 곡이 텍스트로서 다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이 파라텍스트에만 집중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이 곡의 파라텍스트가 아니라 이 곡을 텍스트로 삼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의 관찰로는 이 곡은 음악, 샘플, 뮤직비디오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음악적으로 이 곡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F#장조와 f#단조의 대립이다. 가수와 조성에 따라 이 곡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8〉 Famous의 구조

시간	가수	조성
0:00-0:16	리아나(샘플1)	F#장조
0:16-0:58	웨스트	f#단조
0:58-1:17	리아나(샘플2)	F#장조
1:17-1:50	웨스트	f#단조
1:50-2:57	시스터 낸시	F#장조
2:57-3:17	니나 시몬(샘플2)	F#장조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가수들과 웨스트가 교대로 노래를 부르는데, 다른 가수들의 부분은 F#장조로, 웨스트의 부분은 f#단조로 되어 있다. 곡의 시작 부분에서 리아나(Rihanna, 1988-)는 니나 시몬의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하세요(Do What You Gotta Do)’의 일부를 F#장조로 직접 노래한다. 즉 이 부분은 시몬의 곡을 샘플로 빌려온 것이 아니라 리아나가 다시 녹음한 것이다.

29) Jamieson Cox, “The Top 10 Best Songs,” *Time*, 2016년 11월 22일, <https://time.com/4575319/top-10-best-songs-2016/> [2023년 8월 27일 접속].

〈예 9〉 리아나의 시작 선율(샘플1),

<https://youtu.be/Lq2TmRzg19k?si=dhS508PrI30RXohj>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가사는 이 곡이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끝이여 스위트에 대한 웨스트의 외설적인 가사가 f# 단조에서 등장한다.

〈예 10〉 웨스트의 랩과 반주,

<https://youtu.be/Lq2TmRzg19k?si=Pcz72z5fD—IFutK&t=25>

이후 리아나와 웨스트가 다시 한 번 번갈아 등장하면서 F# 장조와 f# 단조의 반복은 2분 가까이 계속된다. 그다음 시스터 낸시의 샘플이 반복되며 F# 장조를 명확히 한다.

〈예 11〉 시스터 낸시의 선율과 화음,

<https://youtu.be/Lq2TmRzg19k?si=DQoDezvuaUZ9ffW&t=109>

시스터 낸시의 샘플은 TLOP 앨범에서 처음으로 장조가 분명하게 나오는 부분이다. 특히 반주도 주요 3화음만을 사용하여 장조의 느낌을 더욱 분명하게 만든다. 시스터 낸시 이후에는 시몬의 샘플이 들어옴으로써 곡 전체에서 F#장조의 조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끝맺는다.

이런 장조와 단조의 명확한 대조는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곡 전체에서 F#장조의 비중이 높고 F#장조로 곡이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곡은 F#장조와 f#단조가 실랑이를 벌이고 최종적으로 F#장조가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장조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가수들은 모두 여성이고 단조를 부르고 있는 웨스트는 남성이기 때문에 이 곡은 웨스트, 혹은 남성에 대한 여성들의 승리를 음악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해석을 더욱 흥미롭게 하는 점은 시스터 낸시 다음에 시몬의 샘플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시몬의 샘플은 리아나의 두 번째 등장 부분(샘플2)과 동일한데, 우리는 리아나가 불렀던 부분을 시몬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한 번 듣게 됨으로써 이 부분의 메시지에 주목하게 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사의 내용이다. “내가 너의 가족들보다 너를 더 사랑했다(I loved you better than your own kin did)”라는 시몬의 가사는 장조 조성과 맞물려 따뜻한 느낌을 준다. 또한 이어지는 “네가 단지 자유로와지고 싶어 한다는 것 때문에 너를 비난하지는 않을 거다”(I don't blame you much for wanting to be free)는 내용 역시 웨스트에 대한 여성의 이해와 포용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제니퍼 레나(Jennifer C. Lena)에 따르면 “샘플은 랩 아티스트들로 하여금 [...] 보다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의미와 정체성을 부여하는 데에도 이바지한다.”³⁰⁾ 이 곡에서 시몬의 샘플은 곡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F#장조로 표현된 여성의 음악적인 승리가 웨스트를 배척하기보다는 그를 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스위트에 대한 언급은 곡 전체에서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즉 스위트와의 일화는 Famous라는 텍스트의 파라텍스트에 불과한 것이다.

30) Jennifer C. Lena, “Meaning and Membership: Samples in Rap Music, 1979-1995,” *Poetics* 32 (2004), 309.

4. Famous 뮤직비디오: 파라텍스트의 극대화와 소외된 서사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왜 Famous에서 웨스트가 스위프트를 언급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곡들이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웨스트가 스위프트를 언급한 것은 분명히 의도적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스위프트라는 파라텍스트가 가져온 서사의 소외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위프트에 대한 내용은 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으며, 곡의 다른 부분들과도 그다지 연결되지 않았다. 즉 웨스트는 스위프트라는 파라텍스트를 이용하여 서사의 단절을 만들어내었고 그 결과 이 곡의 서사 전체가 통째로 소외되었다. 이런 점은 이 곡의 뮤직비디오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³¹⁾

Famous의 뮤직비디오는 2016년 6월 24일 타이달을 통해 공개되었는데, 원곡보다 더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한 매체는 이 비디오를 “충격적”이라고 평가하였다.³²⁾ 왜냐하면 이 영상의 대부분은 웨스트와 스위프트를 포함한 12명의 유명인들이 나체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³³⁾

31) 뮤직비디오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youtu.be/p7FCgw_GlWc?si=NjyJecR8tUFSwmGY [2023년 8월 27일 접속].



32) Peter Helman, “Kanye West Explains His Shocking “Famous” Video: “Matthew Barney Is My Jesus,”” *Stereogum*, 2016년 6월 25일, <https://www.stereogum.com/1884763/kanye-west-explains-his-shocking-famous-video-matthew-barney-is-my-jesus/news/> [2023년 8월 27일 접속].

33) 영상 속 등장인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https://en.wikipedia.org/wiki/Famous_\(Kanye_West_song\)](https://en.wikipedia.org/wiki/Famous_(Kanye_West_song)) [2023년 8월 27일 접속].

〈그림 2〉 Famous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이와 같은 충격적인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의 논쟁거리가 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인물인지 아니면 인형인지, 그리고 웨스트가 이들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논쟁들은 스위프트와의 실랑이와 마찬가지로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부차적이다. 즉 여기서 다시 한 번 논쟁의 중심에 선 것은 웨스트의 텍스트가 아니라 파라텍스트이다. 필자에게 이 뮤직비디오는 원곡에서 나타난 서사의 단절을 더 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뮤직비디오에 사용된 음악은 원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먼저 영상과 원곡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 영상의 구조를 장면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Famous 뮤직비디오의 구조

시간	뮤직비디오 내용
0:00-0:15	카메라의 시점이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옴.
0:15-0:25	경과구 “Rap is the New Rock and Roll, We the Rock Stars”
0:25-0:37	침대 위의 나체들을 클로즈업으로 하나씩 차례로 보여주기 시작함.
0:37-2:28	Famous 노래 시작.
2:28-6:35	음악이 중간에 멈춤. 숨소리만 들리고 나체들을 계속하여 보여줌.
6:35-7:24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보여주는 엔딩 크레딧(ending credit)가 나옴.
7:24-8:53	Famous가 시스터 낸시의 부분부터 다시 시작함. 웨스트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화면에 나올 때까지 카메라가 뒤로 빠짐.
8:53-10:36	Famous가 끝나고 이후 FSMH의 1부가 메트로 부민 부분부터 시작됨. 영상은 태양만을 보여줌.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원곡과 뮤직비디오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길이가 다르다는 점이다. Famous 원곡은 전체 길이가 3분 17초이지만, 뮤직비디오의 길이는 10분 36초이다. 이는 2분 28초부터 7분 24초 사이에 삽입된 약 5분간의 침묵과 8분 53초 이후에 등장한 FSMH 때문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중간에 삽입된 침묵 부분이다. 이 침묵의 처음 4분 동안 웨스트는 잠자고 있는 나체들을 보여주고 우리는 그들의 숨소리만 듣는다. 웨스트는 이렇게 숨소리만 들려주다가 6분 35초부터 엔딩 크레디트를 보여주는데, 이 동안에는 아무런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이후 7분 24초부터 앞에서 멈췄던 Famous의 음악이 시스터 낸시의 부분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원곡의 중간에 긴 장면을 음악 없이 삽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뮤직비디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점은 필자로 하여금 다시 한 번 고다르의 대항 시네마를 떠올리게 한다.

울렌은 고다르 영화의 특징인 “서사의 비이행성”이 관객으로 하여금 “소외”, “현실”, “불쾌” 등을 느끼게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⁴⁾ 즉 인과관계가 없는 서사로 인해 관객들은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못하고 주인공으로부터 “소외”된다. 그 결과 관객들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을 경험하고 “즐거움”보다는 “불쾌”를 느끼게 된다. 흥미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Famous의 뮤직비디오를 통해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다. 미국의 감독이자, 배우이며 작가인 리나 던햄(Lena Dunham, 1986-)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이 영상이 2016년 당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였던 “강간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³⁵⁾

카니예. 당신은 멋집니다. 명예든 사생활이든 일루미나티든 뭐든지 당신 마음 속에 있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여성이 자신의 침대에서 혹은 자신의 몸에서조차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드는 우리 문화의 측면에서 정보를 얻고 영감을 얻은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보고 싶지도 않고 볼 수도 없습니다.³⁶⁾

34) Wollen, “Godard and Counter Cinema,” 7.

35) Elle Hunt, “Lena Dunham Condemns Kanye West’s New Music Video Famous as ‘Sickening,’” *The Guardian*, 2016년 6월 28일, <https://www.theguardian.com/culture/2016/jun/28/lena-dunham-condemns-kanye-wests-new-music-video-famous-as-sickening> [2023년 8월 27일 접속].

던햄의 언급을 보며 그가 웨스트와 “동일시”하지 못하고 “소외”되었으며, “현실”을 경험함으로써 “불쾌”를 느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던햄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에서 “불쾌”를 느꼈다는 사실은 기사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³⁷⁾

한편 이렇게 웨스트가 고다르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웨스트에게 영감을 준 사람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영상의 제작에 영감을 준 사람으로 웨스트는 빈센트 데시데리오(Vincent Desiderio, 1955-)와 매튜 바니(Matthew Barney, 1967-)를 꼽았는데,³⁸⁾ 현대 미술가이자 영화감독인 바니는 고다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평론가는 바니의 작품에 대하여 “고다르가 자기 자신을 영화감독이 아니라 이미지들의 작곡가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바니를 이미지들의 조각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³⁹⁾라고 평하였다. 실제로 웨스트는 2014년 바니의 6시간짜리 영화 《기본의 강》(*River of Fundament*)의 시사회에 참석하였으며, 그를 “나의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⁴⁰⁾ 이 외에도 웨스트는 패션디자이너 스캇 스텐버그(Scott Sternberg)를 통해 고다르의 작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고,⁴¹⁾ 자신의 트위터에서 고다르를 직접 인용하기도 하였다.⁴²⁾

36) <https://www.facebook.com/lenadunham/photos/a.1614087275538744/1756770211270449/?type=3> [2023년 8월 27일 접속].

37) 유튜브 사용자 scarlett8031은 본 영상에 “7년이 지난 뒤에도 이 영상은 여전히 나에게 가장 기괴한 것 중의 하나이다. 이 비디오는 나에게 이상한 느낌을 준다”라고 댓글을 적었다. 또 다른 사용자 scottkilmer2904는 “이것이 지금까지 카니에게 한 일 중에 가장 기괴한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https://youtu.be/p7FCgw_GlWc?si=NjyEcr8tUFSwmGY_ [2023년 8월 27일 접속].

38) Edward Helmore, “Kanye West’s Famous Video: Is It Art?,” *The Guardian*, 2016년 6월 28일, <https://www.theguardian.com/music/2016/jun/28/kanye-west-famous-video-is-it-art> [2023년 8월 27일 접속].

39) <https://desingel.be/en/programme/youngsters/matthew-barney-the-cremaster-cycle> [2023년 8월 27일 접속].

40) Rain Embuscado, “Kanye West Compares Matthew Barney to Jesus,” *Artnet*, 2016년 6월 27일, <https://news.artnet.com/art-world/kanye-west-called-his-life-walking-performance-art-527441> [2023년 8월 27일 접속].

41) Kelley Hoffman, “A Meeting of Godard and Kanye at Band of Outsiders,” *Refinery29*, 2009년 2월 16일, <https://www.refinery29.com/en-us/a-meeting-of-godard-and-kanye> [2023년 8월 27일 접속].

42) 지금은 트위터 계정이 삭제되어 웨스트의 트윗을 찾을 수 없지만, 다음 주소에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웨스트에게 고다르의 영향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도 Famous에 대한 지금까지 논의가 대부분 스위프트와 침대 위의 나체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파라텍스트의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파라텍스트의 이런 점에 대하여 조나단 그레이(Jonathan Gray)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파라텍스트가 우리에게 어떤 텍스트를 소비할지 결정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많은 텍스트들을 단지 파라텍스트 수준에서만 알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영화나 티브이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많은 파라텍스트를 소비한다. 우리가 영화나 티브이 프로그램으로 나아갈 때, 이 파라텍스트들은 우리의 소비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파라텍스트밖에 없다.⁴³⁾

그레이의 이런 지적은 마치 Famous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으로 보일 정도로 웨스트의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잘 설명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Famous의 뮤직비디오를 텍스트로 삼은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전혀 놀랍지 않다. 우리는 원곡에서 살펴보았던 질문을 영상에게 그대로 던질 수 있다. F#장조와 f#단조라는 상반된 조성을 통해 표현된 원곡의 단절된 서사는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소외된 채로 남아있다.

IV. 나가면서

지금까지 TLOP의 첫 네 곡에 사용된 서사의 특징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웨스트는 첫 곡 ULB에서 가스펠 합창단의 사용을 통해 음악에서 다성성을 만들 어냈고 열린 종지를 통해 마무리하였다. 그다음 곡인 FSMH에서는 성과 속이라는 상반된 내용을 가사와 음악을 통해 보여주었고 그들에게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Famous에서는 파라텍스트의 사용을

이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twitter.com/thefilmstage/status/987019113464762368?lang=gl> [2023년 8월 27일 접속].

43) Gray, *Show Sold Separately*, 26.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으며, 그 결과 아직 이 곡의 서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곡들의 공통점은 서사가 다층적이고 그로 인해 의미가 열려있다는 사실이다. 서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오랜 작업 기간으로 인해 이 앨범에는 다층성이 녹아들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이 앨범이 복잡한 텍스트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곡들에서도 유사한 서사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이렇게 복잡한 앨범을 통해 웨스트는 무엇을 의도하였고 또 우리는 이 앨범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하여 데시데리오의 인터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데시데리오는 Famous의 뮤직비디오에 영감을 준 《잠》(Sleep)이라는 그림을 그린 화가인데, 웨스트는 뮤직비디오를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에 데시데리오를 초대하였다. 자신의 작품이 웨스트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데시데리오는 뮤직비디오를 보고 난 후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카니에는 그것[《잠》] 안에서 어떤 것들을 보았는데, 나는 그가 그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⁴⁴⁾라고 인터뷰하였다. 한편 데시데리오는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사람들을 알아보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힙합과 관련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주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 그런데 영상의 진짜 주제는 침대에 누워있는 이들 중 다수가 혐오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에 관한 모든 것이 제가 그들을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게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자고 있고 마치 아기처럼 연약해 보여요. 우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그들은 단지 유명할 뿐이에요.⁴⁵⁾

Famous의 영상에 등장한 모든 사람에게서 공통점을 읽어내는 데시데리오처럼

44) Joe Coscarelli, “Artist Who Inspired Kanye West’s ‘Famous’ Video: ‘I Was Really Speechless,’” *New York Times*, 2016년 6월 28일, <https://www.nytimes.com/2016/06/29/arts/music/kanye-west-vincent-desiderio-famous-sleep.html> [2023년 8월 27일 접속].

45) Coscarelli, “Artist Who Inspired Kanye West’s ‘Famous’ Video.”

럼 우리는 TLOP에 대해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파블로가 누구이든 우리는 모두 것처럼 한편으로는 성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속스런 존재이다. 웨스트는 이 앨범에서 다양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한글검색어: 카니예 웨스트, 파블로의 인생, 서사, 다성성, 텍스트, 파라텍스트, 장뤽 고다르

영어검색어: Kanye West, The Life of Pablo, Narrative, Polyphony, Text, Paratext, Jean-Luc Godard

참고문헌

- 이미배. “슈만 그리고 상호매체성의 이슈들 (2):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 Op. 16에 나타나는 음악과 문학의 상호매체성.” 『이화음악논집』 25/4 (2021): 117-158.
- Abbott, H. Porter.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Bakhtin, Mikhail. 『도스토예프스키 시학』(*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Polyphony and Unfinalizability*). 김근식 역. 서울: 정음사, 1988.
- Gelbart, Matthew. “Persona and Voice in the Kinks’ Songs of the Late 1960s.” *Journal of the Royal Musical Association* 128/2 (2003): 200-241.
- Lena, Jennifer C. “Meaning and Membership: Samples in Rap Music, 1979-1995.” *Poetics* 32 (2004): 297-310.
- Maus, Fred Everett. “Naratology, Narrativity.” In *Grove Music Online*, <http://www.oxfordmusiconline.com/> [2023년 8월 27일 접속].
- McCune, Jeffrey. “‘Ultralight Beam’: The Gospel According to Kanye West.” *Journal of Hip Hop Studies* 6/1 (2019): 51-53.
- Nicholls, David. “Narrative Theory as an Analytical Tool in the Study of Popular Music Texts.” *Music & Letters* 88 (May 2007): 297-315.
- Wellbeck, Timothy N. “The Gospel according to Ye: Kanye West, *The Life of Pablo*, and Authentic Christianity.” In *Beyond Christian Hip Hop: A Move toward Christians and Hip Hop*. Edited by Erika Gault and Travis Harris, 249-264. New York: Routledge, 2020.
- Wollen, Peter. “Godard and Counter Cinema: *Vent d’Est*.” *Afterimage* 4 (Autumn 1972): 6-17.

인터넷 기사

- Blistein, Jon. “Kanye West: New Album Is ‘Gospel Album with Whole Lot of Cursing’.” *Rolling Stone*, 2016년 2월 4일, <https://www.rollingstone.com/music/music-news/kanye-west-new-album-is-gospel-album->

- with-whole-lot-of-cursing-111762/ [2023년 8월 27일 접속].
- Complex. “The Worst Sex Lyrics in Rap History.” *Complex*, 2017년 1월 24일, <https://www.complex.com/music/a/complex/worst-sex-lyrics-in-rap-history> [2023년 8월 27일 접속].
- Coscarelli, Joe. “Artist Who Inspired Kanye West’s ‘Famous’ Video: ‘I Was Really Speechless.’” *New York Times*, 2016년 6월 28일, <https://www.nytimes.com/2016/06/29/arts/music/kanye-west-vincent-desiderio-famous-sleep.html> [2023년 8월 27일 접속].
- Cox, Jamieson. “The Top 10 Best Songs.” *Time*, 2016년 11월 22일, <https://time.com/4575319/top-10-best-songs-2016/> [2023년 8월 27일 접속].
- Embuscado, Rain. “Kanye West Compares Matthew Barney to Jesus.” *Artnet*, 2016년 6월 27일, <https://news.artnet.com/art-world/kanye-west-called-his-life-walking-performance-art-527441> [2023년 8월 27일 접속].
- Gibson, Harriet. “What We Know about Kanye West’s *Waves*, The Greatest Album of All Time.” *The Guardian*, 2016년 1월 29일, <https://www.theguardian.com/music/2016/jan/29/kanye-west-waves-what-we-know-tracks-collaborators-art> [2023년 8월 27일 접속].
- Helman, Peter. “Kanye West Explains His Shocking ‘Famous’ Video: ‘Matthew Barney Is My Jesus.’” *Stereogum*, 2016년 6월 25일, <https://www.stereogum.com/1884763/kanye-west-explains-his-shocking-famous-video-matthew-barney-is-my-jesus/news/> [2023년 8월 27일 접속].
- _____. “Kanye West’s Updated *The Life of Pablo* Is Now on Apple Music and Spotify.” *Stereogum*, 2016년 3월 30일, <https://web.archive.org/web/20160701001848/>; <http://www.stereogum.com/1868554/kanye-wests-updated-the-life-of-pablo-will-reportedly-be-on-apple-music-and-spotify-this-friday/news/> [2023년 8월 27일 접속].
- Helmore, Edward. “Kanye West’s Famous Video: Is It Art?” *The Guardian*, 2016년 6월 28일, <https://www.theguardian.com/music/2016/jun/28/>

- kanye-west-famous-video-is-it-art [2023년 8월 27일 접속].
- Hoffman, Kelley. "A Meeting of Godard and Kanye at Band of Outsiders." *Refinery29*, 2009년 2월 16일, <https://www.refinery29.com/en-us/a-meeting-of-godard-and-kanye> [2023년 8월 27일 접속].
- Hunt, Elle. "Lena Dunham Condemns Kanye West's New Music Video Famous as 'Sickening'." *The Guardian*, 2016년 6월 28일, <https://www.theguardian.com/culture/2016/jun/28/lena-dunham-condemns-kanye-wests-new-music-video-famous-as-sickening> [2023년 8월 27일 접속].
- Moore, Jack. "Kanye West Changes Album Title Again, From 'Swish' to 'Waves'." *Newsweek*, 2016년 1월 27일, <https://www.newsweek.com/kanye-west-changes-album-title-again-swish-waves-420002> [2023년 8월 27일 접속].
- NME. "Priest Defends Kanye West's 'I Am A God' from Accusations of Blasphemy." *NME*, 2013년 8월 30일, <https://www.nme.com/news/music/kanye-west-520-1259224> [2023년 8월 27일 접속].
- Petridis, Alexis. "Kanye West: *The Life of Pablo* Review." *The Guardian*, 2016년 2월 14일, <https://www.theguardian.com/music/2016/feb/14/kanye-west-the-life-of-pablo-review-you-can-see-why-his-immodesty-rubs-people-up-the-wrong-way> [2023년 8월 27일 접속].
- Platon, Adelle. "Kanye West Combines His Two Loves with 'Life of Pablo' Album & Yeezy Season 3 Debut at MSG." *Billboard*, 2016년 2월 11일, <https://www.billboard.com/music/rb-hip-hop/kanye-west-life-pablo-album-yeezy-season-3-msg-6874814/> [2023년 8월 27일 접속].
- Robehmed, Natalie. "Desiigner Explains How A "Panda" Looks Like A BMW X6." *Forbes*, 2017년 3월 20일, <https://www.forbes.com/sites/natalierobehmed/2017/03/20/desiigner-explains-how-a-panda-looks-like-a-bmw-x6/?sh=65db609b49b8> [2023년 8월 27일 접속].
- Swash, Rosie. "Kanye West Apologises for Interrupting Taylor Swift at VMAs." *The Guardian*, 2009년 9월 14일, <https://www.theguardian.com/music/2009/sep/14/kanye-west-taylor-swift-vm-as> [2023년 8월 27일 접속].

웹사이트

<https://desingel.be/en/programme/youngsters/matthew-barney-the-cre-master-cycle> [2023년 8월 27일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Famous_\(Kanye_West_song\)](https://en.wikipedia.org/wiki/Famous_(Kanye_West_song)) [2023년 8월 27일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Father_Stretch_My_Hands [2023년 8월 27일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Lean_\(drug\)](https://en.wikipedia.org/wiki/Lean_(drug)) [2023년 8월 27일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Producer_tag [2023년 8월 27일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Ultralight_Beam [2023년 8월 27일 접속].

<https://www.facebook.com/lenadunham/photos/a.1614087275538744/1756770211270449/?type=3> [2023년 8월 27일 접속].

<https://twitter.com/thefilmstage/status/987019113464762368?lang=gl> [2023년 8월 27일 접속].

[https://youtu.be/p7FCgw_GlWc?si=Njy\]EcR8tUFSwmGY](https://youtu.be/p7FCgw_GlWc?si=Njy]EcR8tUFSwmGY) [2023년 8월 27일 접속].

국문초록

《파블로의 일생》에 나타난 서사 연구: 첫 네 곡을 중심으로

강 용 식

카니예 웨스트(Kanye West)의 일곱 번째 스튜디오 앨범 《파블로의 일생》(*The Life of Pablo*)은 2016년 발매 이전부터 많은 화제를 모았다. 특히 “욕이 많이 담겨있는 가스펠 앨범”이라는 웨스트의 발언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지금까지 이 앨범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는 과연 이것을 가스펠 앨범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진행되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런 논쟁은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하지 못하며 이 앨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사의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앨범의 첫 네 곡에 나타나는 가사, 음악, 웨스트의 개인사 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이 곡들을 공간의 문제, 서사의 단절과 통합, 파라텍스트의 사용 등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필자는 본 앨범이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는 두꺼운 텍스트라고 주장하였으며 이것의 보편적인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in *The Life of Pablo*:
Focusing on the First Four Songs

Kang, Yongsik

The Life of Pablo, seventh studio album by Kanye West garnered significant attention even before its release in 2016. West's interview that it is a "gospel album with whole lot of cursing" drew people's attention, and most of the discussions related to this album have been about whether it can be considered a gospel album. In this paper, I contend that this debate does not provide meaningful insight a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rrative must be grasped for a deeper understanding. To this end, I examined the lyrics, music, and West's personal history in the first four songs of the album and argued that these songs can be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s of issues of space, disrupted narrative and its integration, and the use of paratext. In conclusion, I argued that the album is a thick text that contains multiple voices and reflected on its universal meaning.

[논문투고일: 2023. 08. 31]

[논문심사일: 2023. 09. 18]

[게재확정일: 2023. 09. 26]